

우울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유용식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Shik Yoo(yoos@semyung.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의 감소와 자살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가족지지체계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지지체계는 교사와 또래간의 지지적 관계형성 프로그램과 친구지지 자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지지체계는 다양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통합적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청소년 | 자살생각 | 우울 | 스트레스 | 사회적 지지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to reduc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prevent their suicide based on tha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exerted significant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As depression and stress became higher, suicidal ideation increased. When other factors were controlled, suicidal ideation increased if social support was provided les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study has made politic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family support system, it is needed to adopt institutional approaches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many different types of education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econd, about the school support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form teacher and peer support relations and build the friend support resource system. Third, in terms of the community support system, it is required to buil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to form diverse local networks.

■ keyword : | Adolescents | Suicidal Ideation | Depression | Stress | Social Support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4년 07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8월 20일

수정일자 : 2014년 08월 20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s@semyung.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 조사결과(WHO, 2011)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자살 사망자는 매년 100만명으로, 전쟁과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으며 40초에 1명씩 자살로 숨지고 있고, 또한 3초마다 자살시도가 이어지고 있다[1]. OECD 국가의 자살률(표준인구 10만명당)은 12.9명인 것에 비해, 한국은 33.5명(2010년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2]. 이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가질 정도로 한국에서의 자살문제는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청소년의 자살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로 주변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특히 외부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박감과 감정 기복이 많고 부모기대와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는 시기이다[3]. 또한 사회환경과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성인처럼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청소년기는 인생의 주기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로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특별히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4].

외국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는 교통사고지만 한국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자살이다. OECD 31개국 청소년(10~24세)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6.4명에서 9.4명으로 40% 증가했다[5].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살행위보다 논리적으로 앞서서 자살생각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의 필요성이다. 자살생각은 자살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며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6].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한 생각도 이후에 더 심각한 생각으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기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해 보면 심리적인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스트레

스, 가족관계 측면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회의 우려 속에 거론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자살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청소년기의 자살생각

자살(suicide)이란 용어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자살생각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 생각으로부터 자살하는 수단에 대한 생각까지를 포함한다[7]. 자살생각은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등의 사고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8].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행위가 반드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제 자살시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자살생각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2011)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 15.6%, 여자청소년 23.5%는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남학생 3.8%, 여학생 6.3%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1].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원 외[9]는 청소년 자살은 실제 죽으려는 의도보다 자신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명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실제 죽음으로 이르지 않고 시도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현실에 대한 인지적인 숙지에 의한 것보다 정서적, 감정적 동요에 의한 일시적인 충동감, 분노감, 자기조절능력 저하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10][11]. 특히 청소년은 인생의 주

기 중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로서 인생의 다른 어떤 시기보다 자살과 같은 위험행동을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12].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살은 성인과는 달리 자살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 번의 자살시도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 무엇보다도 자살시도 이전단계에서 자살시도의 위험성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3].

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우울과 자살생각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우울이다. 청소년의 우울수준이 자살위험성을 사정하는데 있어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하였다[14]. 자살 청소년의 3/4이 자살 전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하며 [15],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10%-15% 정도가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였다[16].

또한 자살을 시도했거나 지속적인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의 40%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 발견 되었으며[17].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우울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18]. 홍영수 외[7]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우울 수준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대인관계 및 학교생활에 위협을 초래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증가 될수록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8].

부모와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가 우울감을 거쳐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

학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별화된 개입 및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9]. 홍영수[7]는 교사와의 부정적 관계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은 유의한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가족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자살생각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가족스트레스 사이에서 자살생각과의 매개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탄력성은 자살생각을 감소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19]. 또한, 가족탄력성의 하위변인 중 신념체계는 의사소통에 영향이 미치고,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0].

2.3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는 가족, 친구, 교사 등이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공부보다는 부모, 친구 간 관계 등의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낮은 사회적 지지나 친구관계 등의 주변 환경은 자살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21].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며, 부모와 밀접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가진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덜 한다고 하였으며, 자살생각을 가진 청소년은 가족과 학교에 대한 애착이나 헌신이 부족하며 동료와의 상호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2].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촉발사건은 학교폭력이 17%로 가장 많았고, 부모의 꾸중이 14.8%, 성적이 10.6%로 나타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정도가 청소년 자살의 중요한 촉발요인이라고 하였다[2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해 충청북도 제천시 관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

학교 2개교, 인문계고등학교 3개교, 실업계고등학교 1개교로 총 6개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8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400부를 조사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52부를 제외한 3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은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 중 임의표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여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자 및 교육받은 8명의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 측정도구

2.1 종속변수

자살생각 척도는 Reynolds의 척도를 번안하고 요인 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박병규[4]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1 '전혀 없다', 2 '1~2번', 3 '가끔', 4 '자주', 5 '매우 자주'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살생각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60으로 나타났으며, 본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55로 나타났다.

2.2 독립변수

2.2.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월평균소득 등을 살펴보았다.

2.2.2 우울

우울 척도는 Beck의 우울척도(BDI: Beck Depression Inventory)를 한국 실정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이민규[24]의 K-BDI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67로 나타났으며, 본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65로 나타났다.

2.2.3 스트레스

스트레스 척도는 한미현[2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833으로 나타났으며, 본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07로 나타났다.

2.2.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Dubow & Ullman의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SSAS)를 재구성한 한미현[2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10으로 나타났으며, 본 도구의 Cronbach Alpha 값은 .92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방법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분석, 평균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자살생각과의 관련성과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설명함에 있어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함께 자살생각과 관련된 영향 변인들을 변수 군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델의 적합도 변화와 설명력의 변화, 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0.0을 활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68명(48.3%), 여학생이 180명(51.7%)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학년은 고2학생이 202명(5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3학생이 118명(33.9%), 고1학생이 28명(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48)

구분		수	%
성별	남학생	168	48.3
	여학생	180	51.7
학년	중3	118	33.9
	고1	28	8.0
	고2	202	58.0
학업성적	상	35	10.0
	중상	88	25.3
	중	122	35.1
	중하	71	20.4
	하	32	9.2
월평균소득	100만원이하	12	3.04
	200만원이하	48	13.8
	300만원이하	88	25.3
	400만원이하	98	28.2
	500만원이하	47	13.5
	500만원이상	55	15.8
가족구성	부모+자녀	264	75.9
	조부모+부모+자녀	45	12.9
	한부모+자녀	29	8.3
	조부모+손자녀	5	1.4
	기타	5	1.4

학업성적은 중이 122명(3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상이 88명(25.3%), 중하가 71명(20.4%), 상이 35명(10.0%), 하가 32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하가 98명(2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이하 88명(25.3%), 500만원이상 55명(15.8%), 200만원이하 48명(13.8%)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부모+자녀가 264명(7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부모+부모+자녀가 45명(12.9%), 한부모+자녀가 29명(8.3%)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측정변수는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살생각이다.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우울의 평균은 2.45(SD=.85)로 우울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2.5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평균은 2.25(SD=.56)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2.5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변수의 하위항목 평균은 학업스트레스가 3.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학교스트레스 2.09점, 가족스트레스 2.03점, 친구스트레스 1.81점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평균은 3.54(SD=.57)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2.5보다 많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수의 하위항목 평균은 가족지지가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친구지지 3.77점, 교사지지 3.05점 순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가족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의 평균은 1.45(SD=.69)로 자살생각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평균 2.5보다 낮게 나타났다.

3. 청소년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청소년 자살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2]와 같이 최종결과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경우는 스트레스($r=-.477, p<.01$)와 가장 큰 부적관계를 보였으며, 우울감($r=-.411, p<.01$), 학업성적($r=-.181, p<.01$), 더미성별($r=.137, p<.05$), 월평균 소득($r=.125, p<.05$) 또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년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의 경우는 우울감($r=.628, p<.01$)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월평균소득($r=-.137, p<.05$), 학년($r=.118, p<.05$)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별, 학업성적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울감은 연령, 학년, 학업성적, 월평균소득 모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월평균소득은 성별($r=-.272, p<.01$), 학업성적($r=-.105, p<.05$)과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학년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성적은 성별, 학년 모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의 경우도 성별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자살생각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변수	성별	학년	학업 성적	월평균 소득	우울감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성별	1						
학년	-.071	1					
학업 성적	.062	.035	1				
월평균 소득	-.272**	-.029	-.105*	1			
우울감	.041	.094	.025	-.076	1		
스트레스	.036	.118*	-.020	-.137*	.628**	1	
사회적 지지	.137*	-.070	-.181**	.125*	-.411**	-.477**	1

*p<.05, **p<.01, ***p<.001

*성별 더미변수의 기준값은 남자 = 0

3.2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통계량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477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10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도 최대치가 1.706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 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로 변수를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단계별 모형 전체의 설명력 변화와 변수추가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력 변화 정도 및 그 유의미성, 추가되어지는 변수의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1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우울, 스트레스,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우울, 스트레스와 사

회적 지지를 투입하여 이전 단계의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변수가 새로 투입되면서 나타나는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 모형을 보면,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모형에 개인적요인인 우울과 스트레스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F=23.186, p<.001), 자살생각 전체 변량의 약 29.0%를 설명하고 있다(R²=.290). 1단계 모형에 우울과 스트레스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새로 투입된 우울과 스트레스를 통해 자살생각의 변량 중 약 28.0%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 Change=67.104, p<.001, R² Change=.280). 2단계 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에서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 투입된 우울(t=6.325, p<.001)과 스트레스(t=3.657,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우울(β =.372), 스트레스(β =.217)순으로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 사회적으로인인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F=21.386, p<.001), 자살생각 전체 변량의 약 30.6%를 설명하고 있다(R²=.306). 사회적 지지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후에도 자살생각 전체 변량의 약 11.6%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Change=7.887, p<.01, R² Change=.116). 3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 중에서는 우울(t=5.825, p<.001), 스트레스(t=2.602, p<.05)와 새로 투입된 사회적 지지(t=-2.808, p<.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2단계와 똑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수 간 상대적인 영향력에서는 우울(β

=.344), 스트레스(β -.161), 사회적 지지(β -.154)의 순으로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단계			2단계			3단계		
변수(군)		B	β	t	B	β	t	B	β	t
인구 사회 학적 특성	성별	-.080	-.058	-1.029	-.099	-.071	-1.490	-.057	-.041	-.845
	학년	.038	.051	.942	-.007	-.009	-.203	-.005	-.007	-.159
	학업 성적	.034	.054	.997	.036	.057	1.247	.018	.029	.618
	월평균 소득	-.021	-.041	-.723	.006	.012	.254	.014	.027	.564
개인 요인	우울				.307	.372	6.325***	.284	.344	5.825***
	스트 레스				.272	.217	3.657***	.202	.161	2.602*
사회 요인	사회적 지지							-.226	-.154	-2.808**
F Change		.866			67.104***			7.887**		
F		.866			23.168***			21.386***		
R2 Change		.010			.280			.116		
R2		.010			.290			.306		

*p<.05, **p<.01, ***p<.001
*성별 더미변수의 기준값은 남자 = 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우울과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홍영수[7], 고성은 등[8], 전영주 등[15], 김현주[17], 신민섭 등[18]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세 번째 모델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우울·스트레스를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과 스트레스는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높일수록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은 낮아질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학교 및 지역 사회의 지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가족지지체계를 위해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역할훈련, 대화기술 등 다양한 교육을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지지체계를 위해 교사와 또래간의 지지적 관계형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며, 위기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지지 자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지지체계를 위해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전문상담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접근 용이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네트워크 조성을 통하여 통합적인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기존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사회적 지지의 변인들도 범주화하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후에도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생각 유발의 매우 강력한 예측인자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인들의 변화나 차이의 양상을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과 제천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여 남녀간, 학년간의 차이점을 밝혀내어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용수, 조성희,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제20권, pp.117-143, 2012.
- [2]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 2012.
- [3]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pp.83-107, 2011.
- [4] 박병급,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생태체계요인 탐색*,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5] 조한익, 차주연, "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0권, 제11호, pp.129-149, 2013.
- [6] 권은희,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7] 홍영수,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제20호, pp.8-33, 2005.
- [8] 고성은, 홍혜영,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1호, pp.97-124, 2009.
- [9] 권세원, 송인한,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 관계에서 인지왜곡이 가지는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67-92, 2011.
- [10] 김민경,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모형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1호, pp.61-83, 2012.
- [11] 우채영, 김관희,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간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4호, pp.219-240, 2011.
- [12] 박재연, *청소년의 자살위기와 레질리언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13] 유재순, 손정우, 남민선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pp.419-429, 2008.
- [14] 정영주, 정영숙,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pp.67-88, 2007.
- [15] 진영주, 이숙현,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제7권, 제1호, pp.221-246, 2000.
- [16] 이삼연, "청소년 자살위험사정모델", 교육이론과 실천, 제10권, 제2호, pp.449-464, 2000.
- [17] 김현주, "청소년 자살위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제27권, pp.69-93, 2008.
- [18]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김중술,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pp.1-19, 1990.
- [19] 김민경, "대학생의 가족스트레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제29권, pp.34-57, 2011.
- [20] 서신자, 정민숙,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62-274, 2013.
- [21] A. Metha and E. H. McWhirter,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Vol.20, pp.284-304, 1997.
- [22] D. Kandel, V. Raveil, and M. Davies,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0, pp.289-309, 1991.
- [23] 김기환, 진명희,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9권, pp.127-152, 2000.
- [24] 이민규, "한국판 Beck 우울척도의 표준화 연구 I: 신뢰도 및 요인분석", 정신병리학, 제4권, 제1호, pp.77-95, 1995.

[25] 한미현,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저 자 소 개

유 용 식(Yong-Shik Yoo)

정회원



- 2003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다문화 복지